

불자 세상보기



성태용
한국대 철학과 교수

태고종은 어디 있는가? 해방 직후라면 한국 최고의 불교 종단이었을 것이고, 그 뒤 조계종의 성립 이후엔 조계종과 대립각을 세운 유일한 불교 종단으로 여겨졌던 태고종은 지금 어디 있는가? 태고종 종도들이 들으면 분노할 말이지만, 지금의 태고종 사태에 대하여 우선 드는 생각은 바로 이 생각이다.

태고종은 어디 있는가? 이 생각, 이 말이 태고종은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우선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어쩌지 되었던 한국의 불교를 대표하며, 또 조계종에 속할 수 없었거나 뜻이 다른 수많은 대덕들이 몸을 담았던 태고종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런 뜨거운 말을 토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만큼 태고종의 현재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외형적 지표만 보더라도 천태종이나 진각종보다 훨씬 뒤지는 것이 태고종의 현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태고종 사태, 대승적 해결을 촉구한다

나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태고종은 완전히 군소 종단 가운데 하나로 전락할 것이며,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 태고종이 지금 관심을 끄는 사태를 빚고 있다. 그런데 그 관심이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정말 부정적이고, 태고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관심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관심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또 이런 극단적인 말들이 되는 것은 이번 태고종 문제의 실상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문제가 불거진 배경을 보자. 태고종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집행부에서 좀 과격하게 칼을 휘두른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그 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그런 부채 문제를 야기하고도 구태의연하게 있었던 기성의 세력 구조 속에서는 태고종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내외의 시각이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지혜롭지 못하였다는 사실, 또 그러한 극단적인 처방을 받쳐줄 만한 현실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되어 폭력을 수반한 분류를 만들게 되

었다는 것 자체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도저히 방지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방편이 빛은 폭력적인 사태까지.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문제는 문제대로 남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만을 더하게 된다. 태고종의 문제를 지켜보는 눈빛에 근심이 어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번 사태가 태고종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마지막 사태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과연 기우일 따름일까?

거기에 이 문제를 두고 양 진영이 전혀 반성과 양보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법적인 심판에 그 해결을 맡기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큰 문제이다. 세속을 이끌어야 할 종교가 세속적 법의 심판에 그 운명을 맡긴다 함은 그 종교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좋을 때이다. 그렇게 세속적 법의 심판에 의해 운명이 좌우된 종교가 과연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가? 무슨 자격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아픈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이유는, 태고종의 지도자들이 문제의 심각

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는 노파심 때문이다. 정말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자기 세력을 위한 싸움에 연연하다가 자기들이 누리고 지켜야 할 태고종 자체가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한국 불교의 큰 손실이요, 불교 역사에 하나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태고종 살리기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소리 높여 충고하고 싶기 때문이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큰 사태로 불거진 것은, 그 바탕에 근원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 근원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양 진영이 모든 사심을 버리고 함께하지 않으면 더 이상 태고종의 미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자기 편이 이기겠다는 싸움을 계속해서 비참한 패배자들만이 남을 뿐이다. 진정한 태고종을 살리려는 대승적 자세로 태고종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100인 대중공사 성공하기 위해선

계획 발표 당시부터 종단 안팎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던 조계종의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1월 28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문을 열었다. 이날 이날 대중공사에는 100인 위원으로 초청된 각계 사부대중 1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실 이 같이 사부대중이 대규모로 모여 종단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토론 방식은 색다른 토론 방식도 눈길을 끌었다. 참가 대중은 이미지 연상하기와 '감사·창의·융합·진실' 등 제시 단어를 보고 스스로 키워드를 정했다. 10개로 나눠진 분임 토의에서는 키워드를 통해 우선되는 종단 현안 의제 5개를 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종단 현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열의 있게 토론했고 제기하는 참가 위원들이 많아졌다.

100인 대중공사는 분임 토의를 통해 각 그룹마다 5가지 의제를 쏟아냈고, 총 14가지 의제를 투표에 부쳤다. 투표를 진행한 뒤에는 실제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8대 의제가 정

해졌다. 하지만 100인 대중공사가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벤트'라는 지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실한 논의와 도출된 방안을 현실에 적용해 실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합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입견이나 편견, 이해관계 득실을 배제하고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각급 중무기관에 적극 반영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승 스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100인 위원들의 원활한 참여와 반대 진영 측 인사들 공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중요하다. 실제 중앙종회의원 당면적 참가자로 이름을 올린 총재 모인 삼화도량 소속 의원들은 대중공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100인 대중공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통'이 관건이다. 반대 목소리를 끌어안아 녹여낼 수 있는 포용력과 정치 지형을 넘어선 정책 반영이 있어야 한다. 100인 대중공사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성년 맞은 불교복지, 새로운 시작 기대

설립 20주년을 맞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불교복지의 산실이다. 현재 복지는 사회의 트렌드로 고착화 됐다. 우리 불교계도 빠르게 20년 전 재단을 만들어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다.

사각지대인 노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의 문호를 넓혔고, 권역별 복지 네트워크 및 수탁 기관 확충 등 불교복지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다. 다문화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사회는 불교계에 보다 많은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뤄지는 복지에 있어 불교가르침에 따라 어려운 이를 보듬는 인재복지는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근본 원인은 일선 인력들의 인성과

교육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종사자 윤리교육 강화가 꼽히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회복지재단이 불교복지 인재양성을 위해 복지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연구개발인력 등을 확충한다니 환영할 일이다.

또 재단 사무국 직원들과 산하 복지시설과의 순환근무 체계를 확립해 복지현장 체험을 통해 현장성 있는 정책을 펴내는 것도 기대해볼 만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며 여기에는 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성년을 맞은 불교복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양적인 성장과 함께 인재복지를 통해 속까지 확산된 성인으로의 모습을 기대한다.

발언대

7일만이라도 잠념없이 정진해보자

부처님 되신 날을 기리며



무상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헛되지 않았더라.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웃는 게송이라 한다. 중생들이 나라고 잘못 알고 집착하는 까닭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비바람 피하기엔 평안한 것이라 착각하지만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처님은 3명(明) 6통(通)을 하심으로써 다시는 집을 짓지 않는 것이다. 신족, 타

심, 천이, 속명, 천안, 누진(漏盡)으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면 번뇌의 다른 이름인 샘(漏)이 아예 없어 걸릴 것이 없으므로 모든 것은 이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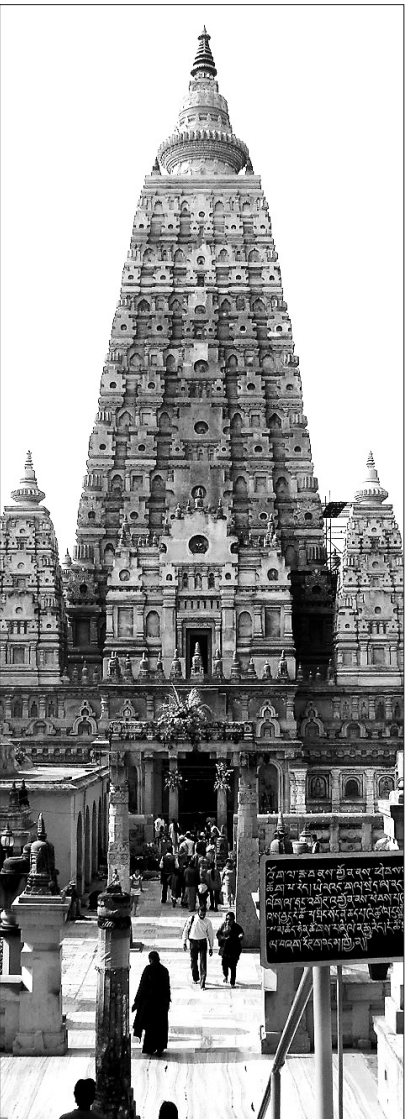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더 이상 새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시간으로 나누면 과거와 미래 그것을 아우르는 현재입니다. 늘 현재이지요. 공간으로는 모든 곳이니 바로 이곳, 여기다. 그래서 인터네티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을 찾아 밖으로 나가자 말고, 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디언이라 잘못하지 말고 머무르라(stay)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 비로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않는 행복, 요즘 말로 하면 지속가능한 행복인 열반을 얻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 "마치 큰 나무들이 뿔뿔한 숲 속을 헤매다가 고대인들이 다녔던 길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살았던 거대한 도시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도시를 복구하여 다시 발전시키는 것과 같다. 나도 그와 같이 옛 길을 발견한 것이다. 내가 발견한 옛 길이란 옛날에 올바른 깨달음이 얻은 사람들이 걸

어갔던 길이였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라고 하셨다.

바른 삶(보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며, 생활하고, 노력하며, 집중하고, 안정함)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며 이미 다른 분(과거 부처님들이)이 걸어갔던 길이 다.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울까? 상근기의 남자 출가자만 가능할까? 부처님께서는 어느 풀이나 나무를 꺾어서 불을 피워도 다 같이 탄다고 하였다.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겹, 여러 해, 여러 달이면 더욱 잘 되겠지만 단 이레만이라도 다른 생각 없이 정진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다.

근대의 해안(海眼)선사도 깨닫기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고 이레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렵다 지레짐작하여 해보지도 않는 것은 부처의 후예라고 할 수 없다. 밤을 새는 것이 목적이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열심히 하느라 밤을 새는 것이지 밤 새느라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해인사처럼, 중국의 여산 동림사나 대만의 사찰에서도 '이레정진(禮七, 佛七)'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인도 부처님 정각 성지인 보드기아의 대탑.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 (02)2004-8200 / 대표팩스 (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요법: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여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빙의치유: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왔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치료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약사요...

살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지금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